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김포시의회 소식지 # 2026. vol. 57

김포시의회

2026 Vol. 57

김포시의회 소식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gimpocouncil.go.kr



김포시의회
Gimpo City Council



Gimpo City Council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Gimpo

CONTENTS



발간사	03
의원소개 및 활동사진	04
의회 조직 및 구성	20
지역구별 의원 현황	22
의정뉴스	24
주요의정활동(제265회 ~ 제267회)	32
건의안 및 결의안	52
아듀! 제8대 김포시의회	54
열린의회	64
소식지 구독 신청	67

2026 김포시의회 소식 제57호
| 발행처 | 김포시의회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사우동 263-1)
| 발 행 | 2026. 7.
| 발행인 | 김포시의회 의장



시민과 함께한 지난 4년의 동행, 든든한 의정의 결실로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뜨거운 생명력이 가득한 2026년의 길목에서, 제8대 김포시의회의 마지막 <의정소식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가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시민 여러분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달린 가슴 벅찬 여정이었습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첫걸음을 뗀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결실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손을 맞잡으며 들었던 따뜻한 격려와 준엄한 목소리들은 여전히 저희의 가슴속에 깊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희망이 실현되는 김포'를 만들기 위해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었던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발로 뛰었고,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 인프라 구축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민생경제 지원 등 당면한 현안 해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오직 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상생과 협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제8대 의회는 지난 4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는 동시에, 김포의 더 찬란한 내일을 열어갈 새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린 변화의 씨앗은 이제 곧 출범할 제9대 김포시의회에서 더욱 큰 번영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롭게 시작될 제9대 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여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김포의 도약을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8대 의회 역시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꼼꼼히 마무리하여, 9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제8대 김포시의회가 바른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책무를 다하는 순간까지 성숙하고 든든한 의회로 남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나온 4년의 동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늘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의회 의장 

김포시의회
의원소개 및 활동사진



김종혁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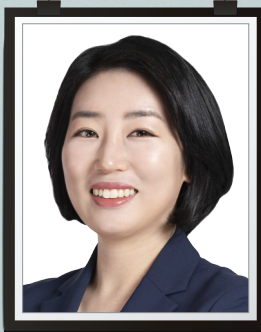
배강민 부의장



김기남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한종우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유매희 의원
(도시환경위원장)



김인수 의원



유영숙 의원

Gimpo City Council



오강현 의원



김계순 의원



황성석 의원



권민찬 의원



이희성 의원



김현주 의원



정영혜 의원





김종혁 | 의장

선 거 구	나선거구(김포본동, 장기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00
이 메 일	kjh2595@hanmail.net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경기도시군의회장단협의회 제181차 정례회
- 3 2026년 지신밝기 행사
- 4 2026년 우저서원 춘기제향



배강민 | 부의장
도시환경위원회

선 거 구	다선거구(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구래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01
이 메 일	gangmin0863@hanmail.net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2026년 김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3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4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김기남 |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선 거 구	나선거구(김포본동, 장기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17
이 메 일	gimponuri79@naver.com



- 1 제2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2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3 2026년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 4 제26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



2



3



4



한종우 | 행정복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선 거 구	다선거구(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구래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6
이 메 일	farmerhan@hanmail.net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제2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3 제28회 김포시장배 테니스대회
- 4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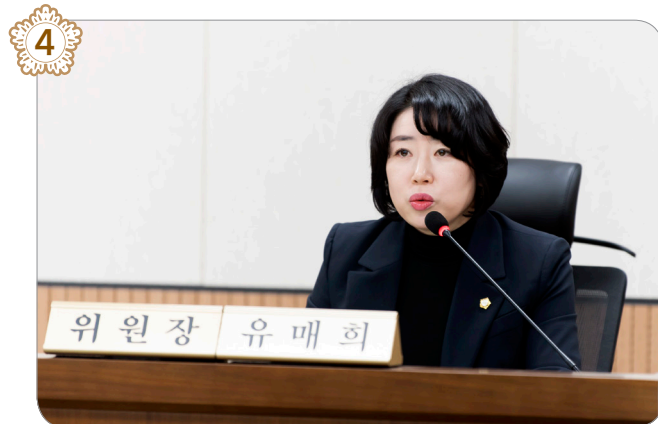
유 매 희

도시환경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다선거구(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구래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20
이 메 일	no1gimpo@naver.com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정책토론회_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력 모색
- 3 김포형 농촌 상생모델 제안 간담회
- 4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 인 수

도시환경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라선거구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9
이 메 일	ppdkim@naver.com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정책토론회_지하철5호선 연장을 위한 해법
- 3 2026년 김포시민의 날 기념식
- 4 제14회 김포한강마라톤대회





유영숙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선 거 구	라선거구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8
이 메 일	yys3920@gmail.com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김포시장장애인당구협회 개소식
- 3 정책토론회_김포시 대표축제 발전방향모색
- 4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오강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선 거 구	가선거구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12
이 메 일	ogang8@hanmail.net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제2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3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4 제46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김 계 순 | 도시환경위원회

선 거 구	가선거구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14
이 메 일	1219mjwin@gmail.com



- 1 상생연대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 2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 3 제26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4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황 성 석 | 의회운영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선 거 구	나선거구 (김포본동, 장기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3
이 메 일	hss71026@naver.com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김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3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 4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권민찬

행정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가선거구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73
이 메 일	hi-gimpo@naver.com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제2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3 기자회견_5호선 예타통과 촉구
- 4 제26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이희성

행정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라선거구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72
이 메 일	actorlhs@naver.com



- 1 정책토론회_김포시 대표축제 발전방향모색
- 2 제2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3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 4 제28회 김포시장배 테니스대회





김 현 주

행정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선 거 구	비례대표
소 속 정 당	국민의힘
전 화 번 호	031-980-2515
이 메 일	dh6461dh@naver.com



- 1 2026년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 2 제2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3 제266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 4 김포복지재단 비전선포식



정 영 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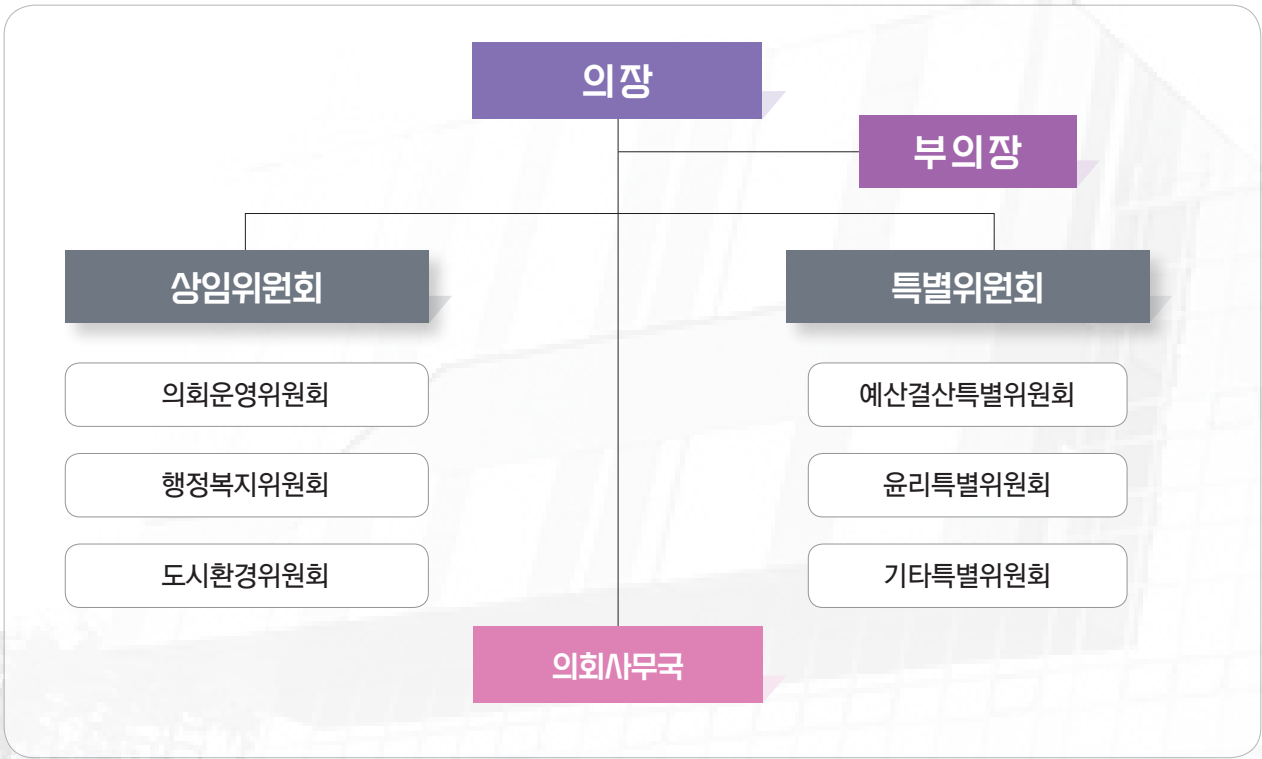
선 거 구	비례대표
소 속 정 당	더불어민주당
전 화 번 호	031-980-2511
이 메 일	baby51300@naver.com



- 1 2026년 신년 현충탑 참배
- 2 김포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 3 제107주년 3.1절 기념식
- 4 제5회 장애인 어울림 축제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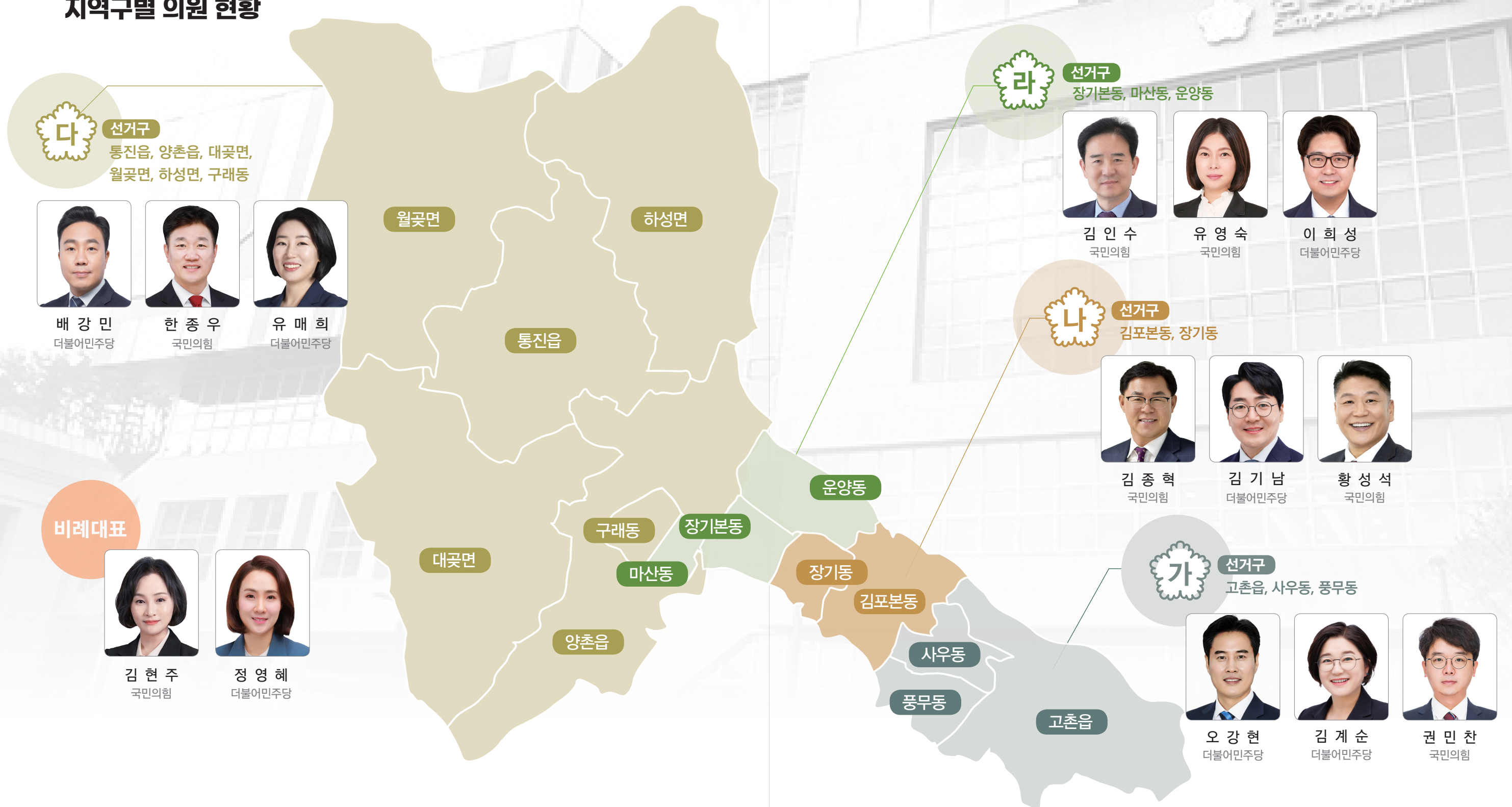
의장단



상임위원회



제8대 김포시의회 지역구별 의원 현황





1	2026. 1. 2.	김포시의회, 현충탑 참배와 함께 2026년 시무식 진행
2	2026.1.13.	김포시의회, '김포시 대표축제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3	2026.1.14.	김포시의회,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 정책토론회 성료
4	2026.1.15.	김포시의회,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5	2026.1.28.	김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2026년 의정활동 시동
6	2026.2.5.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7	2026.2.27.	김포시의회, 2026년 제1차 의정자문위원회 개최
8	2026.3.13.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개회
9	2026.3.26.	김포시의회, 2026년 제1차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10	2026.5.13.	김포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열고 민생예산 처리

NEWS 01 김포시의회, 현충탑 참배와 함께 2026년 시무식 진행



김포시의회 NEWS 2026. 1. 2.

김포시의회는 2일 김포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김종혁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김포 현충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깊은 경의를 표하고,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이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무식은 국민의례, 임용장 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낭독, 신년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의정활동의 시작을 함께했다. 김종혁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 해, 김포시의회는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라는 가치 아래 의정의 내실을 다졌다”며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 정책토론회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의정 전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은 김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시의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살피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새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시무식을 마무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월 중 올해 첫 임시회를 열어 시정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NEWS 02 김포시의회, '김포시 대표축제 발전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김포시의회 NEWS 2026. 1. 13.

김포시의회는 1월 13일(화) 장기도서관에서 '김포시 대표축제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제18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김포시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이 2025년 한 해 동안 수행한 『김포시 대표축제 개발 연구』 용역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포시에 가장 적합한 대표축제의 방향과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 좌장을 맡은 이희성 의원 등 김포시의원과 김포시·김포문화재단 관계자 및 시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희성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그동안 여러 축제를 운영해 왔지만, ‘김포하면 떠오르는 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의 축제를 나열하기보다, 축제를 통해 김포라는 도시를 어떻게 브랜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 수행 책임자로서 발제를 맡은 김해리 박사는 김포시 축제 현황과 국내외 축제 트렌드를 분석하며, “대표축제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김포의 도시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기존 축제 자산을 재정립하고 미식과 체험을 결합한 김포형 축제 모델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효정 김포시 관광진흥팀장은 “김포의 주요 축제들은 한강·수변·농업 등 고유 자산을 기반으로 각각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충분히 연결되지는 못했다”며, “대표축제는 개별 축제를 단순히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축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연계·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포문화재단 이일우 문화본부장은 “김포 축제의 성공 요인은 고유성·장소성·희소성에 있다”며, “라베니체와 애기봉 등 공간 자산을 정확히 활용했을 때 성과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통합된 브랜드 전략으로 확장되지 못한 점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김광희 대표는 “대표축제는 이것저것을 모두 담는 행사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김포에 온다’는 분명한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이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축제의 주체이자 출연자가 되는 구조로 전환될 때 비로소 기억에 남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대표로 참석한 우상하 대표는 “김포의 쌀과 발효 문화를 중심으로 한 ‘막걸리·발효식품 엑스포’형 축제를 통해 농업·산업·관광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하며, “축제의 성과는 방문객 수가 아니라 지역 상권 매출과 재방문을, 도시 이미지 변화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희성 의원은 “대표축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순환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핵심 자산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김포시 대표축제의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와 토론 의견,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김포시 도시브랜딩을 위한 대표축제의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있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NEWS 03 김포시의회,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 정책토론회 성료



김포시의회 NEWS 2026. 1. 14.

김포시의회는 1월 14일 오후 3시, 장기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해법'을 주제로 '제19회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사업 타당성 확보와 정부 설득을 위한 현실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시의원과 시민,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은 김인수 김포시의회 의원이 맡았으며, 주제발표는 서은영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교수가 진행했다. 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김포는 수도권 서부 교통망의 구조적 병목 지역으로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균형과 직결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선 설정과 수요 예측의 현실화,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과 해법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류시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은 재정 및 타당성 관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완성도 높은 사업 구조 설계와 합리적인 비용 부담 논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우식 전 김포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서 “김포시민의 교통 불편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원재무 김포대학교 철도경영과 초빙교수(한양대학교 명예교수)는 수도권 광역철도 추진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간 완전한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실행 가능한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으로 ▲김포시 교통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노선 전략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단계적 추진을 통한 사업 가시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인수 좌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의 핵심은 기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어떻게 더 빠르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 신도시 정책의 신뢰성, 수도권 균형발전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과 지자체 간 협력,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지금 이 시점에서 동시에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포시의회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와 제언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에 보다 분명하고 지속적인 추진 메시지를 전달하며, 김포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EWS
04

김포시의회,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도시 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성료



김포시의회 NEWS 2026. 1. 15.

김포시의회는 1월 15일 오후 2시,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김포시 미래 농어촌 관광 도시 전략 모색'을 주제로 '제20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학계 및 연구자, 농어촌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좌장을 맡은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김포시가 도농복합 도시라는 특성을 잘 활용하고, 농어촌을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할 시점"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김포시 농어촌 관광의 미래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통합 브랜드 및 패키지 상품 개발 ▲지역 관광자원 연계 강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운영 역량 강화 ▲민간 협력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 특산물 활용 융복합 전략 ▲접경지역 특성 활용 ▲안전 및 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별 농어촌 관광도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양세훈 GF미래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순천시(생태), 평창군(농촌 체험), 제주도(탄소중립), 고창군(친환경농업) 등 타 지자체의 ESG 기반 농어촌 관광 정책 사례를 제시하며, 김포시에 적합한 '관광+재정+ESG' 결합형 농어촌 관광 모델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지선진 용인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초빙교수는 김포시 농어촌 지역을 세 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곶면과 대곶면은 역사·문화 자원 기반의 <헤리티지 체험 권역>, 하성면과 월곶면 북부 지역은 DMZ와 자연생태 기반의 <그린-팜(Green-farm) 체험 권역>, 대명향과 전류리포구는 한강과 서해를 연계한 <블루-팜(Blue-Farm) 체험 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자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견해가 다양하게 제시됐다. 이정숙 농촌관광체험 김포시연합회

회장은 경기투어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김포시 농촌체험 관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농로길 파손, 안내·홍보 및 휴게시설 부족 문제 등 김포시의 제도적 한계점을 지적했다.

이어 백성득 영어조합 전류리 어촌계 대표는 "하천법상 조리 체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데 법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어촌체험 관광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류리 어촌계가 현재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김포시 차원의 적극적 노력과 관심을 요청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현채 접경지역 DMZ 인문학연합회 회장은 김포시 농어촌 관광 확대발전을 위해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외 다양한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필요 ▲관련 부서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결과 분석 공유 ▲기존 김포시 관광 거점 자원 재조사 및 특화 ▲조강 마근포, 조강포, 강녕포 어촌 마을 재현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봉원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은 "지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실태조사를 통한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화상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생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김포시만의 독창적인 농어촌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유매희 의원은 "이번 발제와 토론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김포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발제자와 토론자가 지적한 문제의식과 공통된 대안에 깊이 공감했다. 이어 "김포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농어촌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없는 실정"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김포시 농어촌에 제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
05

김포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 2026년 의정활동 시동



김포시의회 NEWS 2026. 1. 28.

김포시의회는 오는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심사 및 의결을 거친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월 29일에는 의원발의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7건의 조례안, 기타안 1건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으며, 이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는 김포시 각 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정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실행계획과 방향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김포시 행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안건과 업무보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
06

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채택



김포시의회 NEWS 2026. 2. 5.

김포시의회는 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14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서울 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KDI 분석을 완료하고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 단계에 있으며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이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사업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중심의 경제성 논리를 넘어, 시민의 생명권 보호와 교통 기본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33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행정적 절차 간소화와 예산 지원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의원은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NEWS 2026. 2. 27. 

김포시의회는 2월 27일 김포한강신도시 자원화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지난해 의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과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해 2025년 회기 운영 성과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간 회기 운영 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 종료 후에는 자원화센터 현장을 둘러보며 반입장과 제어실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서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 과정과 운영 체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생활폐기물이 처리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활용되는 시스템 등도 함께 점검하며 자원화센터가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핵심 시설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혁 의장은 "의정자문위원회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NEWS 2026. 3. 13. 

김포시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NEWS 2026. 3. 26. 

김포시의회는 26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2026년 제1차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자문위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는 자문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25년 하반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보고를 비롯해 의원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 현황, 청렴 교육 실시 내용,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시의원 14명을 대상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예산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금품 수수 등 주요 항목에서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의회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시의회의 전반적인 청렴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조윤숙 위원장은 "제8대 김포시의회가 임기 동안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더욱 청렴한 시의회로 나아가고, 시민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혁 의장은 "제8대 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청렴과 책임을 의정활동의 기본 가치로 삼아왔다"며 "임기 마무리까지 자율적인 점검과 제도 정비를 지속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NEWS 2026. 5. 13. 

김포시의회가 13일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김포시가 제출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고유가·고물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로 개최됐다.

김포시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31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고유가로 인한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예산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지원금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 집중했다.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사업 예산이 적기에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의에 나섰다.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기후동행카드페이백' 사업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농로 개선공사, 병충해 및 기상이변 피해 농가 지원사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이 예산안에 포함된 만큼, 시의회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추경안을 최종 원안가결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긴급성과 시민 생활 안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김종혁 의장은 "고유가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을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안가결했다"며 "집행부에서도 예산 확정 이후 지원금과 민생사업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개회사



제265회 임시회

2026. 1. 28. ~ 2. 5.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 의원님과 김포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옷깃을 여미게 하지만 얼어붙은 대지 아래에서는 이미 봄의

생동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24절기의 시작이자 희망의 전령사인 입춘(立春)을 앞에 두고 우리 김포시의회는 2026년에 새로운 1년을 설계하는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대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 했습니다. 봄이 오면 큰 길운이 따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먼저 여러분들에게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 김포는 시민의 일상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정책과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김포시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우리 시의 행정역량 또한 한층 성숙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김포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충분히 따뜻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그 규모에 걸맞은 의료·상업·문화 등의 기반 시설의 확충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며 교육발전특구에는 지정되었지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이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우리 시민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5호선 연장 사업은 지난 2024년에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행정적 절차와 지자체 간의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한 지금까지도 최종 승인이라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와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의 문턱을 넘기 위해 김포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시민들께 확실한 대안을 드리지 못한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차대한 사업이 여전히 예타 단계에 머물러 수년째 행정 절차만 반복되는 동안 시민분들은 매일 아침 자옥철이라고 불리는 골드라인에서 사투를 벌이며 인내의 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우리 시 필수 사업이 조사 기관의 서류 속에 갇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제 더 이상의 지체는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단순한 철도 노선의 확장이 아니라 70만 대도시로 나가는 김포의 생명선이자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김포시와 시민,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시의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모든 역량을 이곳에 쏟아부어야 할 때입니다. 김포시는 정부 부처 및 예산 당국과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우리 의회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중앙 정치권에 강력히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타 통과를 넘어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착수까지 사업의 시계를 단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우리 모두가 5호선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는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야말로 이 거대한 국책 사업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김포시의회는 5호선 연장의 조기 확정을 위해 정치적, 행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올 한 해 우리 김포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보고해 주시는 내용과 계획 하나하나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임을 인지하고 이번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업무보고가 시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마음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할 때 김포의 2026년은 그 어느 해보다 희망차게 시작될 것입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의 마지막 업무보고인 만큼 동료 의원분께서는 처음의 부지런함을 끝까지 이어 나가는 자세로 이번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해는 강한 열정과 활기를 머금은 붉은 말의 해, 병오년입니다. 말은 멈추어 서 있을 때보다 달릴 때 그 가치가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토마처럼 거침없이 질주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난 겨울의 근심이 녹아내리는 따스한 병오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전처리 현황

제265회 임시회

☑ 총 11건 | 조례안 10건, 기타안 1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결과
3737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과	원안가결
3738	김포시시민헌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	원안가결
3739	김포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서 관 과	원안가결
3740	김포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순환과	원안가결
3741	김포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토지정보과	원안가결
3742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진흥과	보 류
3743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 림 과	원안가결
3744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수립보고	보건행정과	보고청취
3745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혜 의원	원안가결
3746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	원안가결
3747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 김인수 의원 한종우 의원 김현주 의원 이희성 의원	수정가결



의원 발의 조례

제265회 임시회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영혜 의원(대표)

☑ 제안이유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른 2026년 1월 1일자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맞추어 상임위원회별 소관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법령 명시(안 제1조)
- 「지방자치법」제63조의2(교섭단체)를 목적 규정에 추가함.
2.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부서의 명칭 변경, 재배치, 업무 조정 등을 반영함.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대표)

☑ 제안이유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른 2026년 1월 1일자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맞추어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1. 집행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범위 정비(안 제2조제2호)
- “안전기획관, 홍보기획관, 감사관, 과장급”을 삭제하고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대표)



김인수 의원

☑ 제안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중 김포시의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 절차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시의회 보고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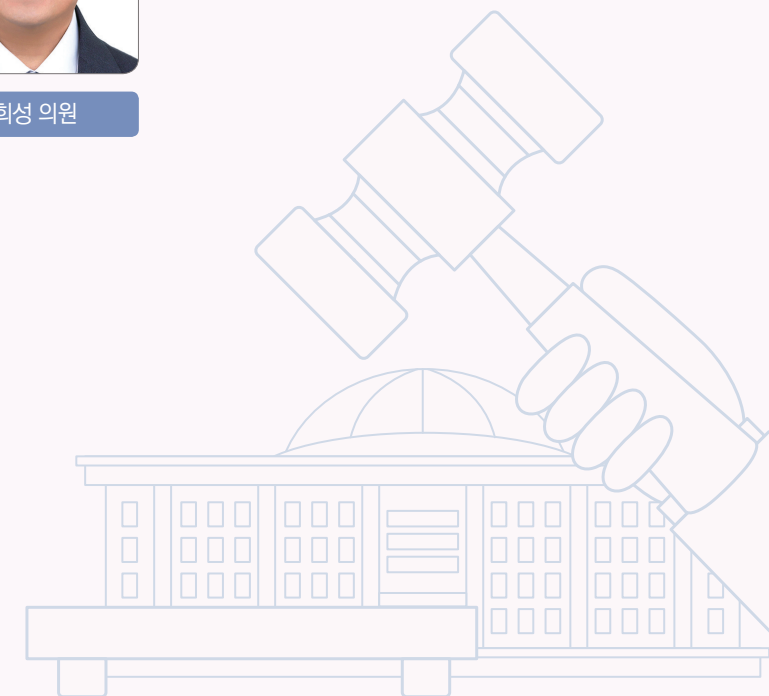
한종우 의원



김현주 의원



이희성 의원





5분 자유발언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6.1.28.)



유영숙 의원



5호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김포시민 모두의 염원인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신속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발표가 연말을 넘어 연초에도 좌절되며 기약 없는 희망 고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어 70만을 향하고 있고 한강2콤팩트시티와 사우북변 일대 도시 재개발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근본 교통책의 시작인 5호선 소식은 묵묵부답입니다. 2023년 11월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 했던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에게 되물습니다. 정부 여당이 바뀐 현재,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가 왜 외면되고 있습니까? 도시의 성장과 비례하지 못하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지체 현상, 주요 간선도로마다 나타나는 정체 현상, 다중 환승의 비효율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특수 현황입니다. 김포의 특수한 교통 환경을 해소시킬 근본책인 5호선은 신속 예타 발표가 연기된 지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시민들은 골드라인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하루 한 번꼴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앞으로 김포는 한강2콤팩트시티 입주, 대곡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김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극심한 혼잡의 특수성, 향후 개발 진행 상황 등을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5호선은 노선 검토나 기술적 타당성이 아닌 시민 안전을 기준으로 봐야 할 시급한 사안입니다. 재난 앞에 경제성은 따질 수 없고 5호선은 김포 연장을 고민하고 재단하고 있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는 김포의 교통 상황이 불편을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명백한 생존권 문제임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5호선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다 주택 공급만 이어지게 된다면 제2 골드라인 사태 재현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5호선 연장 연기를 넘어 신도시 주택 공급까지 미루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설사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2026년 대한민국의 김포는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5호선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경제성 논리를 넘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안이 분명합니다. 이례적으로 늦어지는 발표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경제성 논리 뒤에 정치가 숨어 있다, 선거용 희망 고문을 멈추라고 거리

서명과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5호선 예타 발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포시민도 국민입니다. 안전하게 출퇴근하고 사람답게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통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는 김포시민의 목소리는 왜 반년 넘게 외면당해야 합니까?

5호선 연장의 문제는 정당의 문제도, 정치적 계산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김포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와 기재부, KDI는 김포의 특수성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통계가 아닌 시민의 고통과 현장을 보십시오. 오늘도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가며 출퇴근하는 국민들이 바로 여기, 김포에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규탄합니다. 3년 전 민주당 국회의원, 지금 재선이 된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이 얘기했던 그 문구 그대로 다시 힘주어 말하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 여당이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6.1.28.)



배강민 의원



김포의 교통보릿고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교통실패도시 김포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52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종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곡·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 시점에서 김포의 교통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닌 도시의 생존과 시민의 안전을 좌우하는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접근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철도 개통 전까지 김포시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실행 로드맵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김포골드라인 사태를 통해 철도보다 인구가 먼저 들어오는 도시가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제2차 교통 공백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히 김포의 교통보릿고개라 부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위기가 예측이 아니라 확정된 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강시네폴리스를 시작으로 풍무역세권, 감정4지구, 결정4지구 그리고 김포 한강2콤팩트시티까지 수만 세대 수십만 명의 인구가 짧은 기간에 순차적으로 김포에 들어옵니다. 대광위의 5호선 개통 목표는 2031년입니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2033년 전후가 보다 합리적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 5호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약 5년이라는 교통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은 김포골드라인과 버스 그리고 이미 포화 상태인 도로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입주가 시작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골드라인은 혼잡을 넘어 기능 마비로 갈 것이고 올림픽대로와 주요 간선도로는 상시 정체가 구조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시간, 건강, 안전, 삶의 질로 돌아올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위기가 일정표로 예측 가능한데도 김포시는 철도 이전 교통관리 전략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실행을 담보할 특단의 체계부터 요구합니다. 김포시는 철도 개통 전 공백기 최소 5~7년을 전담할 시장 직속의 교통혁신본부를 즉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 본부는 철도, 버스, 도로, 환승 수요관리를 하나의 지휘체제로 묶어 입주 타임라인에 맞춰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상설 컨트롤타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관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통행시간, 광역버스, 정시성, 골드라인

혼잡도, 환승 대기시간 같은 시민 체감 지표를 정하고 월분기 단위로 공개 점검해야 합니다.

철도 개통 전 교통 공백기 대응 로드맵도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김포골드라인은 증차 플러스 극한 운영체제로 들어가야 합니다. 배차 간격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출근 시간대에는 거점에서 빈 열차를 투입하는 커팅 운영을 상시화해야 합니다. 승강장 동선 분리와 안전요원 집중 배치로 정차 시간을 줄이고 환승 수요는 인근 버스 거점으로 분산시켜 혼잡을 구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둘째, 버스는 막히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광역버스는 늘어도 도로 위에 갇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올림픽대로와 김포 진입부 주요 구간에 BTX를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버스 우선신호, 실시간 단속, 병목 개선을 묶은 버스 우선권 패키지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광역급행버스를 도로 위 지하철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입주 후 민원이 터진 뒤 노선을 만드는 행정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입주 6개월 전 노선 확정, 입주 3개월 전 차량 인력 준비, 입주 즉시 운행하는 입주 연동형 광역버스 인가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넷째, 신규 공동주택단지과 역 환승 거점을 셔틀처럼 직결해야 합니다. 감정4지구, 시네폴리스, 향산리 일대는 도보 철도권이 아닙니다. 이 지역에는 출근 시간대 단지에서 역과 광역정류장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출근형 고정 셔틀을 투입해야 합니다. 집 앞에서 역 앞까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대중교통으로 옮겨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모든 대책은 시민의 출근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나중에 대비하자는 말의 대가를 김포골드라인으로 치렀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시청사에 붙은 민선 8기 주요 성과 홍보 플래카드를 보며 백마도 개발 MOU처럼 법적 실효성도 불분명한 성과보다 김병수 시장님의 핵심 공약이자 김포의 최대 현안인 5호선 김포 연장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성과가 그 자리에 크게 걸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김포의 교통보릿고개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느냐 방치하느냐에 따라 김포가 교통 실패 도시가 될지 위기를 관리하는 도시가 될지 결정될 것입니다. 집행부의 속도감 있는 결단과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드리며 본 의원은 이 계획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6.2.5.)



5500억 김포시 부담, 이것이 정말 최선의 행정입니까?



오강현 의원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민 누구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5호선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포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생존의 교통 인프라입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분명합니다. 5호선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빠르게 가져오느냐입니다.

최근 시장께서 발표하신 5호선 연장 사업비 5500억을 김포시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선언. 이 결정이 5호선 예타 통과를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인지 아니면 막다른 상황에서 던진 무리한 선택인지 시민의 입장에서 차분히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자부담 증액이 실제 예타 통과에 미치는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핵심인 경제성 평가는 총사업비 대비 편익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원 부담의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경제성, 즉 B/C 지표 자체가 직접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5호선 연장의 핵심은 경제성 확보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미 제한한 경제성 향상 방안들이 KDI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지 자칫 성급한 자원 투입 약속이 실제 통과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시의 부담만 키울까 심히 우려됩니다.

둘째, 이미 확보된 정책적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김포시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노력으로 5호선은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덕분에 경제성 평가의 문턱은 낮아지고 정책성 평가의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또한 콤팩트시티 원인지부담금 1조 2000억을 통해 이미 충분한 정책적 가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리한 고지를 두고도 5500억이라는 시민의 소중한 미래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전략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셋째,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 김포골드라인 건설 당시 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우리 시 재정이 겪었던 고통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인프라 부족의 현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미래의 개발이익은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도서관, 공원, 학교 등 생활 인프라를 채울 소중한 자원입니다. 경제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데 이 재원을 선제적으로 묶어버린다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예산이 부족해지는 재정 마비 사태가 올 것입니다.

시장님, 정말 김포시 재정으로 5500억이 가능하다면 콤팩트시티

개발부담금 1조를 더해 1조 5500억으로 우리가 원하는 노선으로 차라리 제2의 골드라인을 김포시가 직접 설계·건설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골드라인 총사업비 1조 5000억 중 3000억을 시가 부담했습니다.

넷째, 시민의 합의와 투명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토록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결정은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면밀한 검토 없이 발표된 자부담 선언은 자칫 시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될 수 있으며 중앙정부에 김포는 돈이 많으니 국비를 덜 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 5호선 연장은 한 개인의 승부수가 아니라 김포의 백년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 비수도권 사업에 걸맞은 정당한 국비지원과 조속한 예타 통가를 당당히 요구하는 행정의 실력입니다. 지금은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담보로 한 자부담 선언보다는 대광위 노선 중재안의 선결 과제인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접경 지역이자 안전 인프라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과 선출직이 총단결하고 예타 신속 통가를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는 실리적 행정이 더욱 필요할 때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6.2.5.)



버티는 쓰레기 행정에서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로.



유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포시의 쓰레기 문제를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단기 대응의 문제가 아닌 도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2025년 기준 연간 약 11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0억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약 6만 톤의 일반폐기물 중 절반가량을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2026년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김포시 행정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요구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2021년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같은 해 입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광역소각장 부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는 농림부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모두 완료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확정 고시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이미 시행 중이며 당초 일정에 비해 사업 추진은 사실상 최소 2년 이상 지연된 상태입니다. 같은 시기 소각장 신설을 추진한 경기도 내 타 지자체들과 비교해 보면 김포시의 문제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2025년 11월 기준 광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중앙투자심사를 이미 완료하고 재원까지 확보한 상태로 현재는 터키 발주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 단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LH 주관으로 기본계획과 설계를 진행 중이며 환경기초시설공사 발주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가평군 역시 2023년 최종 입지 후보지를 결정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를 거치며 당초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일부 조정된 지자체들 역시 지연의 원인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화성시는 토지소유주 동의 철회로 사업이 한 차례 무산되었고 남양주시는 행정절차 지연, 광주시는 민간제안 관련 소송, 의왕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착수 지연 등 각 지자체마다 구체적인 현실적인 사유가 존재합니다. 어느 지자체도 김포시처럼 수년째 중앙부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사업 지연의 핵심 사유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앙부처 협의는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임에도 김포시만이 이를 사실상 사업 정체의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적 불확실성은 곧바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이후 김포시는 잔여 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으며 올해는 선제적 대응으로 큰 혼란을 피했지만 광역소각장이 완공되는 2032년까지 매년 임시 방안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포시의 기존 폐기물 처리 인프라 또한 동시에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내 크린넷 시설은 설치 후 15년을 넘기며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가 반복되고 있으며 책임 운영·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원화센터 역시 혼합배출물 증가와 시설 노후로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인근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로 향후 부지 면적 조정 등 사업계획 전반의 재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각시설과 이송 인프라 그리고 중간처리시설까지 쓰레기 처리의 모든 단계가 동시에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특정 시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의 폐기물 행정 전반이 함께 흔들리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김포시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원순환은 단순히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처리, 자원화, 에너지 회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체계를 의미합니다.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 단계 관리 강화, 자원순환센터 기능 재편을 통한 선별·재활용 고도화, 유기성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의 단계적 도입은 모두 하나의 정책 흐름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은 시설 확충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민의 분리배출 실천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 그리고 재사용과 재활용 참여가 교육, 제도 개선,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은 구조적으로 줄어들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는 시설을 먼저 짓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실천이 정책과 연결되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도시입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광역소각장·크린넷·자원순환센터·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개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발생 감축, 처리, 자원화, 에너지 회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중장기 자원순환 전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나열이 아니라 김포시 폐기물 행정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정책 체계 전환의 문제입니다.

둘째, 광역소각장 조성 지연에 따른 중장기 폐기물 처리 로드맵과 재정 영향 분석을 포함하여 크린넷·자원화센터 등 기존 폐기물 처리 인프라 전반에 대한 기능 재정립과 단계별 개선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 위탁 처리에 따른 비용 증가와 행정적 불확실성을 더 이상 관행적으로 감내할 수는 없으며 개별 시설을 연명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원순환을 전제로 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정책을 시설 정책과 병행해 체계적으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문제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재정과 생활 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문제입니다.

김포시는 이제 버티는 쓰레기 행정에서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6.2.5.)



5호선,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는 결단하라.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일 아침 숨 막히는 지옥철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51만 김포시민의 처절한 고통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이 고통의 쇄살을 끊기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정부의 문을 수십 번 두드린 김포시장의 행보를 지지하며 무책임한 지역 정치권과 정부 기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일 김병수 시장은 시민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정부 부처를 수십 차례 오가며 5호선 예타 통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심청의 각오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김포의 출근길은 불편을 넘어 위험이며 시민의 하루는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5호선 김포 연장선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김 시장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시민의 위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심청의 각오로 사업비 5500억을 김포시가 직접 부담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5500억은 과거 대장동 사례처럼 소수 투기 세력에게 수익을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시민과 김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직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진 진정성 있는 결단입니다.

김주영·박상혁 두 국회의원께 엄중히 묻습니다. 여러분의 5호선 공약은 오직 선거용이었습니까? 선거 때마다 5호선 연장을 외치며 시민의 표를 받아 간 두 국회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거대 야당의 의석을 가지고도 예타 면제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국회 문턱에서 공전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입니까? 시장이 5호선 예타 통과를 위해 정부 부처를 제집 드나들듯 뛰어다닐 때 두 국회의원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2월 2일 시장의 결단이 발표되자마자 두 국회의원은 다급하게 이를 뒤인 2월 4일 SNS를 통해 경제성 향상이니 건폐장 이전이니 뒷북을 치는 행태에 시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야 건폐장 이전을 논하며 경제성 타령입니까? 경제성 논리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결국 KDI 검토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또 늦추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5호선 김포 연장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정치적 계산을 위해 두 국회의원이 5호선 김포 연장에 녹장을 부리는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권이 걸린 사업을 정치적 볼모로 삼아 지연시키는 행위는 51만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또한 KDI와 대광위는 김포시민의 생존을 담보로 한 숫자놀음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여전히 경제성을 근거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결정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어질수록 사고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손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뿐입니다.

KDI는 김포시가 제안한 파격적인 재정 분담안을 즉각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즉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대광위 또한 지자체 간의 눈치 보기를 멈추고 시민을 살리는 안전 인프라인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을 확정하십시오. 정부 기관의 지연 행정은 김포시민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폭력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정치는 말로 하지만 시민의 삶은 결과로 지켜집니다. 김병수 시장이 보여준 5500억의 결단은 김포시민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결단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국회의원들과 정부 기관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제 역할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독촉할 것입니다.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김포시민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개회사



제266회 임시회

2026. 3. 16. ~ 3. 25.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 의원님과 김포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기나긴 겨울의 침묵을 깨고
대지 위에 생명의 기운이
역동하는 3월입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처럼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의 온기는
결국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찬란한 계절에 제8대
김포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66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4년간의 8대 김포시의회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2년 7월, 시민의 엄중한 부름을 받고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그날의 각오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지난 김포의 4년은 김포가 인구 50만 대도시로 공식 진입하며 행정 체계가
대전환되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통과 및 GTX-D 노선 확정 등 김포의 지도를 바꾸는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매해 150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며 일하는 의회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단순히 지방행정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제안자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설계자로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증명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의원으로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핀
꽃이 가장 향기롭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의정 활동도 임기 말에 이르러 더욱
향기로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안 및 기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8대
의회가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성적표와도 같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는 법정 경비,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을
위주로 예산안이 이루어진 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추경 심의에
우리 의회의 최선의 역량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이 민선 8기의 마지막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추경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는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유종지미(有終之美)는 단순히 끝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 적응하고 다소 게을러지는 것은 사람의 속성일
수 있으나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에게는 결코 허용될 수 없는
태도입니다. 비록 제8대 김포시의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은 이번 회기로

마무리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웠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늘 화창한 봄날만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처리 현황

제266회 임시회

☑ 총 13건 | 조례안 8건, 예산안 1건, 기타 4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결과
3742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진흥과	수정가결
375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법무과	수정가결
375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원안가결
3752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장애인과	수정가결
3753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건행정과	원안가결
3754	2035 김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	찬성의견
3755	2030년 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과	찬성의견
3756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김포~파주) 영업소 관련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의회 의견 청취의 건	도시계획과	찬성의견
3757	김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운양동 1246-1 에코센터)	공원과	부 결
3758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	원안가결
3759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중우 의원 유영숙 의원	원안가결
3760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중우 의원 유영숙 의원	원안가결
3761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성 의원	원안가결

의원 발의 조례

제266회 임시회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숙 의원(대표)

☑ 제안이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가 주간 중심에서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 경관 관리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야간경관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관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야간경관의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2)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중우 의원(대표)



유영숙 의원

☑ 제안이유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차위반 및 무단방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견인료는 실제 견인·보관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견인료 현실화를 통해 행정비용 회수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질서 확립 기능을 강화하며, 아울러 견인 비용 조정을 통해 대여사업자의 자율적 관리 책임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견인료 요금 변경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중우 의원(대표)



유영숙 의원

☑ 제안이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확산으로 시민의 이동 편의성은 향상되었으나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장구 미착용 등 법규 위반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보행환경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여사업자의 이용 안전 증진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신설 (안 제11조)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희성 의원(대표)

☑ 제안이유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으로 천막 재질에 비해 안전성이 제고되었으나, 현재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설치되는 부속 건축물, 보관시설 등에는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가 제한되어 있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폐배터리 등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으나, 고온다습 및 습기에 취약한 구조적 환경 속 자연발화·화학적·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되어 현행 조례에 명시된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강판 재질로 구조를 개선하고 화재예방 및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가설건축물의 허용범위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 포함(안 제20조제2항제11호)



5분 자유발언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2026.3.16.)



유영숙 의원



5호선 예타 통과, 김포의 멈추지 않는 심장이 만들어낸 대반전의 기록.

안녕하십니까? 장기본동운양동-마산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는 김포 역사에 길이 남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라는 대도약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공이 아니라 김포시와 시민이 원팀이 되어 만들어낸 위대한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끓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김포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5호선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병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야를 떠나 힘써주신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호선 예타 통과라는 결실 뒤에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대반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 서울시가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일대 부지 개발 용역을 발주하며 시작된 5호선은 시민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건폐장 없는 5호선이라는 구호 속에서 수년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외쳤습니다. 그 절박한 목소리는 결국 2022년 김병수 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김포시의 출범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선 8기 출범 4개월 후인 2022년 11월 11일, 김포시와 서울시 강서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멈춰 있던 5호선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정부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광역교통대책으로 5호선 김포 연장을 발표하면서 김포의 5호선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과의 노선 협상은 매 순간이 쉽지 않았고 예타 통과와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선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김병수 시장은 시장직을 걸고 인천과의 노선 조정안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월 노선 조정안이 발표되었고 같은 해 8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을 통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에 본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 기획재정부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며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말 예정이었던 발표가 지연되면서 김포시민들의 기대와 불안은 다시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의 5호선 연장은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2017년 5호선 김포 연장이 무산된다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배수의 진을 치고 추진했습니다. 또한 2023년 인천과의 노선 경쟁이 극에 달했을 때 건설폐기를 처리시설 이전 재검토라는 강력한 지렛대를 활용해 인천의 요구를 최소화하며 김포의 노선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26년 KDI로부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에도 김포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포의 미래를 단순한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각오로 개발이익금

5500억 투자 제안이라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타 발표 지연으로 꺼져가던 5호선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은 김포의 절박함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타 과정에서 김병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대광위와 KDI,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설득과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수도권 반영 기준은 막바지 전략이 아니라 2025년 상반기에 김포시의 건의로 이미 적용되었고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도 수요에 반영되며 경제성 향상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김포는 중앙정부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렸습니다. 회의실 복도에서라도 마지막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 간절함은 관계 기관 사이에서도 회자될 만큼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정질의 과정에서 “부르지 않는데 왜 갑니까?”라고 했던 때와 달랐습니다. 김병수 시장은 부르지 않아도 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 5호선 예타 통가를 만들어 낸 김포 행정의 힘이며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진정한 주인공은 김포시민입니다. 시민이 시작한 국회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5호선은 단순한 경제성 사업이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는 사업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5호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5호선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핵심 교통 대책이며 김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지금은 하루라도 빨리 김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김포시의회 역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정파를 넘어 김포의 미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된 힘이 얼마나 큰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하철 5호선을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그날까지 모두의 힘으로 끝까지 지켜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6.3.25.)



한종우 의원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졸속 행정의 사슬을 끊고 시민 맞춤형 의료로 거듭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중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7기 전임 시 정부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남긴 졸속 행정의 뼈아픈 실책을 되짚어보고 우리 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임 시 정부의 무책임이 낳은 행정 잔혹사, 행정사무조사 도 없는 1600억 지원이라는 허상을 앞세워 전시성 행정에만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200억이라던 공사비는 두 배 이상 폭등했고 사업은 멈춰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의 지연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인하대학교 측 역시 인적·물적 피해를 입으며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임 시 정부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김포시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대학병원 유치라는 시민의 꿈을 볼모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대 병원에 거는 시민의 기대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는 단순한 대학병원을 넘어 우리 김포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바꿀 핵심 의료 인프라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추진될 병원 건립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필수 기능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첫째,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중증 응급의료센터가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김포는 인구 50만을 넘어 대도시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생명이 위급한 중증 환자들이 타 도시의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인하대병원은 명실상부한 서북권 거점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깨어있는 의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아 전용 병동 및 전문 의료 서비스 확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많지만 밤새 열이 나는 아이를 업고 갈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인하대병원은 반드시 소아 전문 응급실과 특화된 소아 병동을 갖추어 김포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김포 안에서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투명한 행정이 신뢰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임 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이 김포의 올바른 의료정책이며 인하대학교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약속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검토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5분 자유발언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6.3.25.)



김계순 의원



김포 4년, 무엇이 멈췄나.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중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4년 김포시 행정을 돌아보며 김포는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멈췄는가? 그 질문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는 말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예측 가능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정책과 책임 있는 행정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 김포시 행정은 예측성도 타당성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추진된 정책이 반복된 시간이었습니니다. 정책은 있었지만 방향은 흔들렸고 사업은 발표됐지만 결과는 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년을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첫째, 김포 교통 정책은 시작부터 혼선이었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은 경기도와 인천시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단독적인 MOU 체결로 출발하며 행정 신뢰를 흔들었습니다. 광역교통사업의 기본은 협의와 조정입니다. 그러나 그 기본이 무너진 채 출발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신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둘째, 교통 대안은 검증보다 보여주기가 앞섰습니니다. 한강 리버버스 사업, 김포시민의 출퇴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습니니까? 수천억 규모 사업에 비해 시민 체감 효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홍보와 정책 발표만 앞섰습니니다. 결국 예측 없는 행정, 검증 없는 정책이 시간과 예산을 소모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 이벤트가 반복되었습니다. 스케이트장 유치, 서울 편입 주장, 법도 통과되지 않은 이민청 유치 이중 무엇이 실제 정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니까? 정책은 가능성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4년은 가능성만 이야기하고 책임은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니다.

넷째, 김포의 핵심 사업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시민이 기다리는 사업들은 지연되거나 멈췄는데 행정은 성과보다 메시지에 집중해 왔습니니다. 인하대병원 김포메디컬캠퍼스, 김포예술회관, 금빛체육센터, 걸포4지구 개발, 고촌역 역세권 개발, 스타필드 유치 여기에 더해 김포 산업 기반과 직결된 소공인 정책 역시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민선 7기에서 국도비 32억 반영된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사업을 민선 8기 들어 34억으로 국도비 예산이 반납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이 단절된 사례입니다. 준비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확보된

예산조차 활용하지 못한 행정, 이것이 바로 예측성 없는 행정, 타당성 없는 행정의 결과입니다. 김포에는 특화지원센터도 복합지원센터도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묻습니다. “도시는 멈췄는데 왜 홍보만 늘어나는가?”

다섯째, 시민 생활 행정도 근본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문제, 골드라인 문제, 스마트안전체험관 문제 이 모든 것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은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김포 행정은 그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4년 김포는 무엇이 달라졌습니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습니니까? 시민은 더 이상 계획도 발표도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민선 8기 김포시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행정의 본질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이란 무엇습니니까? 행정은 보여주기가 아닙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타당해야 하며 결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무너지 때 도시는 멈춥니다. 김포의 시간은 더 이상 멈출 수 없습니다. 출퇴근의 고통도 의료 공백도 생활의 불편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 합니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이벤트가 아니라 실행으로, 정치가 아니라 행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민선 8기의 마무리는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4년의 행정을 바로잡고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김포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흔들린 행정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결과로, 이벤트가 아니라 실행으로 김포 행정의 방향을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며 김포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역할입니다.

지난 시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설득하며 김포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김포를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묵묵히 시정을 이끌어온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제2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2026.3.25.)



김현주 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이 아이 키우기 좋은 김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중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주 시의원입니다.

민선 8기 김포 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보육과 교육에 진심입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 공언하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비전 아래 우리 김포의 보육 환경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의원으로서 이러한 시정 방향에 깊은 신뢰와 응원을 보냅니다.

하지만 시장님, 완벽해 보이는 이 보육 정책의 지도 위에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할 사각지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첫 울타리가 되어주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현재 저출생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이분들은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반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외에 지원 체계에서 비껴나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원아 수가 조금만 줄어도 당장 내일의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육 지원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대책만 마냥 기다리기에는 우리 김포의 보육 현상이 너무나 절박합니다. 지역 보육 인프라가 한 번 무너지면 이를 복구하는 데는 지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서울과 인천, 인근 하남시 등의 지자체는 국가 정책과는 별개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지원하며 상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인천, 대전, 하남 등은 반별 운영비를 최소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포시도 가장 시급한 0세에서 2세 영아반을 대상으로 반별 월 10만 원 수준의 최소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지원할 경우 약 12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억이라는 예산,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단순한 시설을 도와주는 보조금이 아닌 김포의 보육 인프라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나중에 발생할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가장 가성비 높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마중물이 민간 보육 현장의 숨통을 틔워준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김포의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시정에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포시가 추진하는 명품 보육 도시 김포를 더 단단하게 다지는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 지원 원칙을 견지하되 우리 김포가 먼저 최소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보육 현장의 눈물을 닦아준다면 그것이 김포의 보육 형평성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선생님들이 오직 아이들 돌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웃는 김포, 아이들의 미래가 가장 밝은 김포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회사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 의원님과 김포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연둣빛 새순이 어느덧 짙은 초록으로 물들어가는 봄기운이 완연한 시기입니다.

봄의 절정을 향해가는 요즘입니다만 우리 마음은 고유가와 고물가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무겁기만 합니다. 중동전쟁 위기로 촉발된 국제 유가의 폭등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가 제267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고유가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정부와 우리 시가 약속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적시의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민생 경제가 시들지 않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될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포함한 약 331억의 규모로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제267회 임시회

2026. 5. 13.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허용하는 성립 전 예산이라는 긴급 처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 높은 우리 김포시민 여러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단 하루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다뤄야 할 안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는지, 지급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한 불편은 없는지를 심의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혹여 행정 절차의 지연이나 착오로 인해 지급 기일이 넘기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정성이 있다면 우리 김포에는 다시 희망의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작게나마 시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시원한 단비가 되기를 소망하며 개회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처리 현황

제267회 임시회

☑ 총 2건 | 예산안 1건, 기타 1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결과
3762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법무과	원안가결
3763	AI 미래창의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공원과	부 결 (본회의)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돌파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수도권 교통망으로 인해 단순한 불편을 넘어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상시로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할 대상이 아닌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국가 대책으로 5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신속한 통과로 김포교통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과 동시에 2033년 조기 개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있도록 정부 및 관계 기관이 함께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 채택하고 관계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조사 촉구 결의안」



5호선 김포 연장 없이 김포 미래는 없다.

김포시민의 생명권 보장과 교통 기본권 회복은 국가의 준엄한 책무이다!

대한민국의 역동적 성장을 견인해 온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돌파하며 대도시로 거듭났으나 그 이면에는 교통지옥이라는 가혹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옥철이라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상시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KDI의 분석을 마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라는 마지막 관문에 서 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서부권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결할 유일한 실효적 대안이자, 정부가 약속한 교통 격차 해소의 핵심 척도이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51만 김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가 경제성의 논리를 넘어 국가적 대응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정부는 2기 신도시 건설 당시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구축의 지연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단순한 비용 대비 편익 수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균형 발전과 정책적 타당성을 적극 반영하여 즉각적인 승인 절차를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성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교통은 복지이자 생존권이다. 매일 아침 숨 막히는 혼잡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라. 5호선 연장은 경제 논리로 접근할 대상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긴급 처방임을 인식하라.

하나,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2033년 조기 개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철도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타 통과 이후의 절차 또한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5호선 김포 연장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51만 김포시민과 함께 총력을 다할 것이며 신속 예타가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2월 5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김포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여정 제8대 김포시의회

2022년 7월,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약속과 함께 출범한
제8대 김포시의회는 4년 동안 시민의 삶 한복판을 지키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52만 김포시 시민들의 민생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 그 발자취를 정리해 본다.



아듀! 제8대 김포시의회

- 뉴스1 새로운 시작, 제8대 김포시의회 출범 ●
- 뉴스2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
- 뉴스3 활발한 입법 활동과 합리적 견제의 조화 ●
- 뉴스4 정책 대안의 산실,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
- 뉴스5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현안 해결 위한 '건의·결의안' 채택 ●
- 뉴스6 새로운 백 년의 시작, 신청사 개청과 도약 ●
- 뉴스7 디지털 소통 강화, 유튜브 Live 및 SNS 활동 ●
- 뉴스8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



1

뉴스 1 새로운 시작, 제8대 김포시의회 출범

김포시의회는 지난 2022년 8월 3일,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직접 선택을 받은 14명의 의원은 이날 개원식에서 '시민의 봉사자'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의원들은 시민의 복리 증진과 김포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엄숙한 선서로 첫발을 뗐습니다.

제8대 의회는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의기관으로서 씬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민생 현장을 발로 뛰며 일궈낸 수많은 조례와 정책적 제언들은 김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으며, 시민 중심의 의정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



3

뉴스 2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김포시의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및 주요 시설물 현장 방문을 정례화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했습니다. 특히 김포시의 핵심 현안인 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과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등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처리를 꼼꼼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동시에,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행보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요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의정 활동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며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2

사진설명

- 1 2022.08.03.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 2 2022.08.03. 제8대 김포시의회 개원
- 3 2025.06.13 제25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지확인 CCTV 관제센터
- 4 2025.06.13 제25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철도차량기지



4



1

뉴스 3

활발한 입법 활동과 합리적 견제의 조화

지난 4년간 김포시의회는 정례회 6회와 임시회 25회를 개최하며 방대한 양의 의정 업무를 소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입법 활동의 질적·양적 성장입니다. 의원들은 총 376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그 중 119건의 안건을 직접발의하는 등 시민의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기관의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왔습니다.

단순한 법안 마련을 넘어 시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집행부가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의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회 운영에 주력했으며, 이는 곧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3

뉴스 4

정책 대안의 산실, '의원연구단체' 활성화

김포시의회는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총 9개의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김포시의 특수성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했습니다. 의원들은 전문가 자문, 선진지 현장 점검, 정책 토론회 등 내실 있는 연구 과정을 거치며 단순한 이론을 넘어 실무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과물은 단순히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과 공유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조례 발의와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김포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문화는 의회 전체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의정 활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4



5

사진설명

- 1 제8대 전반기 본회의
- 2 제8대 후반기 본회의
- 3 지속가능한 명품도시 연구회
- 4 김포시 BTL-BTO 활용방안연구회
- 5 FUNFUN한 축제 만들기 연구모임



1

뉴스5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에, 현안 해결 위한 '건의·결의안' 채택

제8대 김포시의회는 지역의 핵심 숙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뜻을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4년간 총 7건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통과시키며 김포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에 대해 강력한 정책적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신속 예타 통과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계양~강화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김포 구간 지하화 촉구 건의안' 등을 선제적으로 채택하며,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알리고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결의·건의안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관계 부처의 관심과 정책 반영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는 52만 김포시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2



3

뉴스6

새로운 백 년의 시작, 신청사 개청과 도약

김포시의회는 2024년 4월 12일, 오랜 염원이었던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의원 14명 전원을 비롯해 김포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등 주요 내빈 100여 명이 참석해 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신청사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설계되어 소통의 문턱을 크게 낮췄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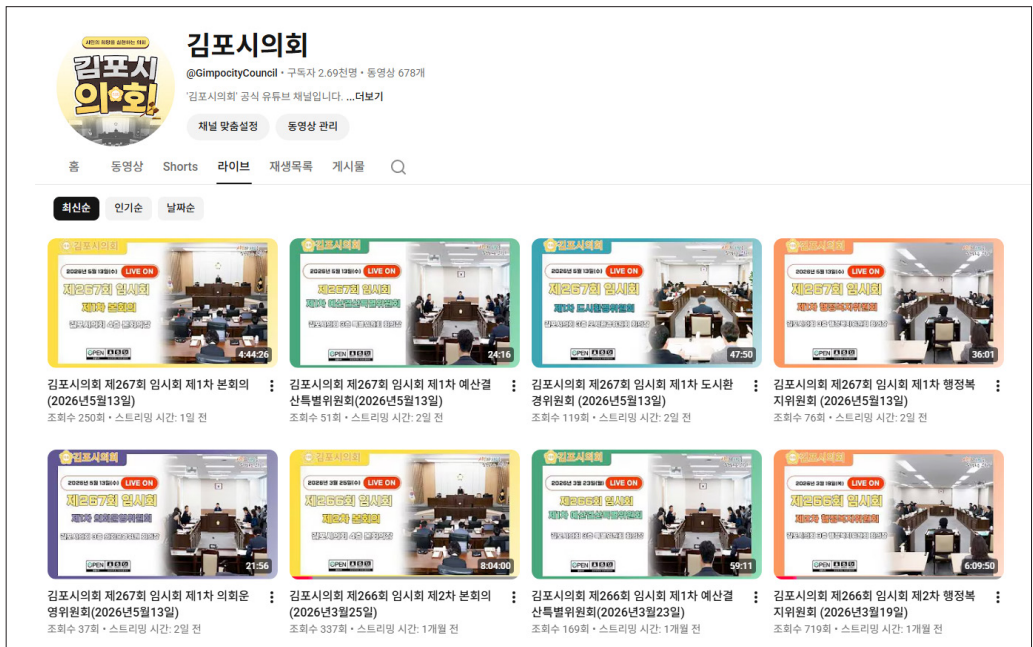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신청사 개청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 효율성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4

사진설명

- 1 제8대 전반기 결의안
- 2 제8대 후반기 결의안
- 3 김포시의회 신청사 개청식
- 4 김포시의회 신청사 개청식



1

뉴스7 디지털 소통 강화, 유튜브 LIVE 및 SNS 활동

김포시의회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지난 4년간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운영하며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본회의 및 주요 행사를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하여 시민들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소통은 딱딱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의회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 등은 의정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2



3

뉴스8 온기를 나누는 따뜻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

김포시의회는 입법과 감시라는 고유 업무 외에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며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의원들은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연말연시에는 희망산타 후원금 전달 및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직접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천사 날개를 달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힘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은 의회가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말로만 하는 의정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며 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자세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4

사진설명

- 1 김포시의회 유튜브 채널
- 2 김포시의회 페이스북
- 3 천사 날개를 달다 김포복지재단기탁식
- 4 아이사랑센터 산타클레이 기부금 전달식

김포시의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 김포시의회 누리집 「의회에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의회에 바란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령의 제도 개선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김포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방청안내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5186-8643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투명하고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회의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방청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문의처 의회사무국 의사팀 031-5186-8643

김포시의회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통 홍보채널 운영

시민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누리집

의정활동 홍보와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소개, 의원정보, 회기운영 결과 등 종합적인 의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누리집 ▶
(<https://gimpocouncil.go.kr>)



소셜미디어(SNS)

소셜미디어 채널은 의정 소식과 정보를 빠르게 전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창구입니다.



의회방송 시청안내

시민 여러분께 의정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 의회방송 생중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중계는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청 가능하며, 김포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및 다시보기 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의회 유튜브 라이브 ▶



2026년 연간 회기운영 계획

회기운영 : 8회 84일 (정례회 2회 44일 / 임시회 6회 40일)

회 기	기 간	주 요 내 용	비 고
제265회 임시회	1.28.(수) ~ 2.05.(목) (9일)	• 시정업무보고 • 조례안 및 일반안건 • 결산검사위원 선임	
제266회 임시회	3. 16.(월) ~ 3. 25.(수) (10일)	• 2026년도 제1회 추경안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67회 임시회	5. 13.(수) (1일)	• 2026년도 제2회 추경안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68회 임시회	7. 1.(수) (1일)	• 제9대 김포시의회 개원식 • 제9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제269회 임시회	7. 16.(목) ~ 7. 24.(금) (9일)	• 시정업무보고 • 조례안 및 일반안건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제270회 임시회	8. 31.(월) ~ 9. 9.(수) (10일)	• 2026년도 제3회 추경안 •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271회 정례회	10. 13.(화) ~ 11. 3.(화) (22일)	• 2025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및 일반안건 • 시정질문	
제272회 정례회	11. 25.(수) ~ 12. 16.(수) (22일)	• 시정연설 청취 • 조례안 및 일반안건 • 시정질문 • 2027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 2026년도 제4회 추경안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소식지 구독 신청

김포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아래 경로로 구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1 홈페이지 접속 <https://gimpocouncil.go.kr/>

02 의회소식 - 의회홍보

03 의회소식지 - 무료구독신청



[문의] 의회홍보팀
031-5186-8652





김포시의회
Gimpo City Council